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대통령 영상메시지(초안)

세계 각국과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희망의 빛을 다시 찾아 70년이 된 해입니다. 광복 70주년입니다. 아울러 남과 북이 서로 떨어져 분단이 된 것도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뜻 깊은 해를 맞아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이신 진제 큰스님의 원력으로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뜻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종교인들과 스님들, 많은 불자들과 더불어 해외에서 오랜 세월 깊은 수행을 해 오신 여러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만 불자들이 이렇게 큰스님들과 함께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정진한다니 통일과 평화의 기운이 광화문 광장에 가득할 것입니다.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 시대를 개막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협력의 통로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통일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동북아 평화 유지 및 조화와 협력을 통해 인류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행복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 평화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기원대회가 우리나라 전통의 빛의 축제인 연등회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연등을 밝혀 무명의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원대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행복과 한반도 통일의 길, 세계 모든 인류가 평화를 누리는 수행 정진의 길에 저 역시 두손 모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